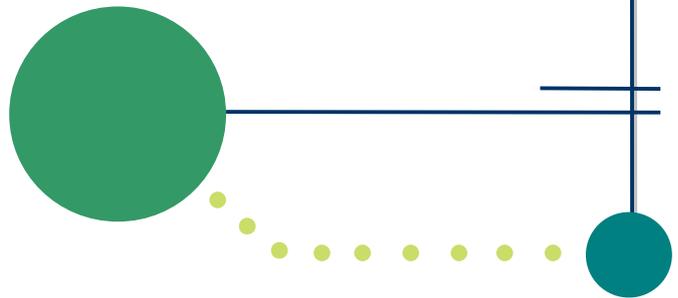




## 중남미 게임 시장 동향

- 브라질, 광고기반 게임 붐
- 브라질 게임업체, 기능성 게임 2종 출시
- 아르헨티나, 게임개발 아웃소싱 센터로 부상



### 브라질, 광고기반 게임 붐

#### 🌐 브라질에서의 게임 광고 부상

- ◆ 브라질에서는 게임이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, 게임 스폰서나 광고용 게임 등의 형태로 젊은 고객을 유혹하는 광고 도구로 부상하고 있음
  - 광고 사업에서는 광고용 게임이 인터넷의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맡고 있음
  - P&G 계열 브랜드 Gillette의 Rodrigo Finotti 매니저는 배너 광고보다 강력한 도구의 필요성에 주목했다며 올 10월까지 3개의 브랜드 광고 게임 런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

#### 🌐 기업용 기능성 게임 시장 확대 중

- ◆ 브라질의 게임 개발사들은 게임 개발비를 초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용 기능성 게임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
  - 기능성 게임의 법인 시장은 불법 복제의 위협을 피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대안으로 간주되기도 함
- ◆ 기업용 기능성 게임 개발사인 Aennova의 대주주 Leonardo Reis는 컴퓨터 기반 훈련에 익숙한 회사들이 e-learning에 익숙하기 때문에 기능성 게임에도 쉽게 적응할 것이라고 전망함
  - 기능성 게임은 e-러닝 프로젝트보다 5배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며, 복잡성에 따라 5만 달러에서 60만 달러 정도의 가격대로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짐
- ◆ 브라질 게임 개발업체들의 법인 사업 부분은 평균 이상의 성장을 거둔 것으로 확인됨
  - Aennova의 경우 게임 및 시뮬레이터가 수입의 60%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고, Gestum 역시 게임이 수입의 10%에 달했으며, Braga의 경우 게임 분야에서 지난 2년 간 62%의 성장을 거둔 데 이어 다음해에도 42%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됨

## 브라질 게임업체, 기능성 게임 2종 출시



### ● Brazil, 더 많은 기능성 게임 제작

- ◆ 브라질 게임개발사인 Unusual Studios는 경영 테마의 컴퓨터 기반 교육 및 훈련용 기능성 게임 'Ilua Entrepreneur'와 'LudoPark' 두 편을 출시
- ◆ 'Ilua Entrepreneur'는 플레이어가 가상 환경에서 회사의 창업과 아이디어 창출, 경제적 발전이라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업 전반의 교육을 실시하는 게임
  - 'Ilua Entrepreneur'가 'LudoPark'보다 세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, 현실의 정보 시장을 배경으로 한 만큼 "고등학생 및 졸업자 이상의 고객에 주목한" 게임이라는 컨셉으로 판매 중
- ◆ 'LudoPark' 역시 유원지 내 사업 경영이 배경으로, 플레이어는 간이 스낵바나 완구점을 관리하면서 고객을 끌어들이고 시장에서 번성하기 위한 전략 구성법을 교육받을 수 있는 게임
  - 'LudoPark' 역시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능성 게임인 만큼 기업과 학교 교육의 수업자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, USP의 Jose Dornelas 및 PUC-SP와 Senac의 Roger Tavares와 같은 전문교사의 조언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짐
- ◆ 두 게임 모두 사용 라이선스의 구입으로 이용 가능

 [www.insolitastudios.com/en](http://www.insolitastudios.com/en)

## 아르헨티나, 게임개발 아웃소싱 센터로 부상

### ● 아르헨티나, 크리에이티브 아웃소싱 메카로 급부상

- ◆ 인터넷, 전자우편을 비롯, 최근에는 Skype, ClockingIT, Basecamp, WebEx와 같은 합작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면서 크리에이티브 아웃소싱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음
- ◆ 크리에이티브 아웃소싱이 신종 영역으로 각광을 받는 가운데, 아르헨티나가 프로그래밍 강대국 인도와 제조업의 거인 중국을 제치고 창의적 재능과 높은 교육 수준, 서구식 문화 및 저렴한 비용이란 장점으로 게임 개발을 비롯한 웹 디자인, 그래픽 디자인, 플래시, 3D 분야의 이상적인 아웃소싱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음

### ● 아르헨티나가 크리에이티브 아웃소싱의 메카로 손꼽히는 이유

- ◆ [경제적 상황] 이동통신 시장 개방과 미화 달러 대비 1:1 인 고정 환율 동결로 통신 인프라 보급 확대와 저비용 고수준의 상품 개발 인력 확보가 큰 영향을 줌

- ◆ [풍성한 인력] 웹 디자인, 그래픽 디자인, 3D 전문분야, 애니메이션 등에서 일하고자 하는 창의적 인력이 풍부함
  - 최근 MTV는 아르헨티나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에 주목, 남미지사를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이전하기로 결정함
  - 남미 제일의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, 특히 IT 분야의 수준 높은 전문가가 포진
- ◆ [문화적 친숙도] 아르헨티나 인구의 98%는 유럽의 후손으로 대부분 이탈리아와 스페인 이민자의 혼혈로 이루어져 있어 북미 및 유럽 문화에 적합한 창의적 사고가 가능하고 업무진행에 있어서도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적음
- ◆ [인도에 필적하는 저렴한 임금] 현재 아르헨티나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일자리 수보다 많아 높은 창의성과 실력을 겸비한 노동자를 월 700달러에 고용할 수 있음
  -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세계에서도 저렴한 임금을 받는 도시로, 동부 유럽의 평균 임금보다도 60% 저렴하며 이는 인도보다 겨우 15% 높은 수준임

### 아웃소싱 시장의 폭발적 성장

- ◆ 아르헨티나의 아웃소싱 산업은 2001년 이래 폭발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
  - Connaxis, Latin 등 10개가 넘는 크리에이티브 아웃소싱 업체가 지난 6년 간 급성장을 이뤄냈고 최근 MTV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지사를 두어, 남미 시장을 겨냥한 독창적 콘텐츠 제작의 허브로 삼음

Gameloft, MTV 등 해외업체들은 아르헨티나 내 고용인력을 늘리며 아르헨티나의 저렴한 고급인력에 주목하고 있음